

강진군, 제40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지회

“장애인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하길”

지난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지회(지회장 윤재항)가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0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흰지팡이헌장 낭독, 유공자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장애인 복지 운영 발전 및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임명자(여, 76세) 씨와, 이경대(남, 31세) 씨가 군수 표창을 김영록(남, 42세) 씨가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지회상을 수상하였다.

윤재항 지회장은 “흰지팡이

는 시각장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또 하나의 의미이다”라며 “흰지팡이의 날을 통해 우리 회원들이 화합과 삶의 보람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승욱 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삶의 활력을 얻었으면 한다. 우리 군민 모두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흰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80년 세계맹인연합회에서 제정한 날이다. 강진군은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인성교육 및 점자책자

원 사업 등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시·청각 장애인 보조 투표용구·통역서비스 제공안하면 차별”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를 개최할 때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인권위는 30일 국민의당(바른미래당으로 통합)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경선 현장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에 해당지역 도당에 연락해 투표보조용구와 보조, 이동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측은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아 차별을 받았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국민의당측은 “경선을 5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돼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더 일찍) 요청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대략의 편의 제공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날(30일) 인권위는 지방선거 등 선거방송을 방영할 때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B사에게 권고했다.

뉴스1

“화순 적벽 단풍놀이 다녀왔어요”

영암군장애인복지관, 하반기 사회문화 현장학습 체험



산인 적벽투어를 하고 치즈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간의 유대 관계를 쌓는 계기가 됐다.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5일 복지관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70명과 함께 화순 적벽투어 및 치즈체험학교로 “장애인 사회문화 현장학습” 체험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 체험에서는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적인 문화유

산인 관계자는 “연2회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사회문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쉽지 않은 관내 장애인에게 봄·가을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구례군 장애인 어울 한마음 대축제 성황



구례군은 29일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2019년 장애인 어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남지체장애인연합회 구례군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비장애인,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장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 실버음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모범인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로 구성된 ‘지리산울림’ 난타팀의 공연이 오늘 행사를 더욱 흥겹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어 2부에서는 장기자랑으로 노래솜씨를 뽐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푸짐한 상품들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훈훈한 시간이었다.

김순호 군수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척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군민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이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립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 없는 선진사회를 만들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아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